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51
------	------

2022. 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3.2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주용태)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무 명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 3) 사무내용
 -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

나. 추경개요

- 1) 추경예산 : 1,450,000천원
 - ※ 총 출연금액 39,950,657천원(기 출연금 38,500,657천원)
- 2) 출연금 편성 내용
 - 서울시 유스발레단 창단 타당성 : 100,000천원
 - 예술로 동행 : 300,000천원
 - 무용단 신작쇼케이스 : 80,000천원

- 뮤지컬 신규작품준비금 : 50,000천원
- 기획공연 사전준비금 : 120,000천원
- 전시사업 사전준비금 : 20,000천원
- 비상발전기 교체 : 780,000천원

3) 추경필요성

- 서울시 유스발레단 창단 타당성
 -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에 맞는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유스발레단 창단에 대해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과 이해관계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 선행 필수
- 예술로 동행
 - 세종문화회관의 연례 계속사업으로,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예술단 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문화예술향유 취약계층 시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상반기 내 협력 자치구 선정, 공연준비 등 추진 필요
- 무용단 신작 쇼케이스
 - 공연 사업 특성상 사업이 확정되어야 연출, 작품라이선스 취득 등이 가능
 - 사업기간인 11월~12월인 점을 감안, 사전에 연출, 대본 등의 계약이 선행되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므로 상반기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
- 뮤지컬 신규작품준비금
 - 시장 조사기간과 라이선스 취득 시기를 고려하면 하반기 추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촉박한 사업기간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

- 기획공연 사전준비금
 - 해외 라이선스 공연 특성상 라이선스 비용이 지불이 되어야 프로덕션 진행이 가능하여 하반기 추경으로 진행 시 사업 기간이 촉박하여 2023년 원활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
- 전시사업 사전준비금
 - 작품의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사업일정, 사업 계획의 확정이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우수한 작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에 추경하여 사전 사업 구상을 진행할 필요
- 비상발전기 교체
 - 법정 내용연수 기간 15년을 훌쩍 넘긴 45년째 운영 중으로 노후화가 심각하여 공연 중 정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교체가 시급

다.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 2) 규 모 : 대지 55,758㎡, 건물 63,396㎡ (지하 3층, 지상 6층)
 - 공연장(세종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S씨어터), 전시관(세종미술관, 세종충무공이야기), 교육시설(세종예술아카데미)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출연의 규모 및 필요성

-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의 출연금은 385억 1백만원이며, 본 동의안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출연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14억 5천만원임.

< 세종문화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42,370,657	40,920,657	1,450,000	3.5%
출연금	39,950,657	38,500,657	1,450,000	3.8%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420,000	2,420,000	0	0%

- 세종문화회관의 출연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 특히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자체수입이 급감하여 2021년도에는 위탁사업장인 삼청각을 제외한 당기순손익에서 15억 3천5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 세종문화회관 최근 5개년 간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총수입	51,381(100%)	54,881(100%)	59,023(100%)	50,087(100%)	45,963(100%)
출연금	26,263 (51%)	30,780 (56%)	32,913 (56%)	36,469 (73%)	35,770 (78%)
자체수입	25,118 (49%)	24,101 (44%)	26,110 (44%)	13,618 (27%)	10,193 (22%)

-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 사업비 예산은 177억 6천5백만원으로 2021년도 188억원 대비 5.5%인 10억 3천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공연사업은 101억 1백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14.1%인 12억 4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 지출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계	59,614	61,379	△1,764	△2.9%
인건비	27,078	26,982	96	0.4%
성과급	1,213	1,213	0	0.0%
관리비	12,387	14,384	△1,998	△13.9%
사업비	17,765	18,800	△1,034	△5.5%
예비비	1,171	0	1,171	0.0%

<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업 예산 >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증감액	증감률
공연사업	10,100,900	8,856,500	1,244,400	14.1%
예술단공연	6,373,900	5,217,500	1,156,400	22.2%
기획공연	3,045,000	2,643,000	402,000	15.2%
나눔연계공연(천원의 행복)	400,000	845,000	△445,000	△52.7%
꿈의숲 기획공연	282,000	151,000	131,000	86.8%

다. 세부사업별 검토

- 세종문화회관이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은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7억 8천만원 ▶서울시유스발레단 창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1억원 ▶나눔연계공연(예술로 동행) 3억원 ▶무용단 신작 쇼케이스 8천만원 ▶뮤지컬 신규사업 준비금 5천만원 ▶기획공연 사전준비금 1억 2천만원 ▶전시사업 사전준비금 2천만원 총 7개 사업임.

<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목록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추경액
계		1,450
1	세종문화회관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780
2	서울시유스발레단 창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100
3	나눔연계공연(예술로 동행)	300
4	무용단 신작 쇼케이스	80
5	뮤지컬 신규사업 준비금	50
6	기획공연 사전준비금	120
7	전시사업 사전준비금	20

1) 비상발전기 교체공사(7억 8천만원)

- 동사업은 1977년에 제작·설치된 비상발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구연한인 11년이 경과된 후 30년 이상이 지나 성능저하와 고장 발생의 우려가 있어 추경을 통해 긴급히 교체하려는 것임.
- 기설치된 비상발전기는 ‘서울시 도시안전과 전기분야 안전점검’ (2015.4.) 및 ‘정부VIP행사 시 청와대 경호팀 안전점검’ (2015.2.)에서 교체를 권고받은 바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안전진단 (2021.5.25.)에서도 “발전기 출력 과전압 및 출력 변동 심함”의 진단을 받아 전문업체를 통해 수리받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았음.
- 세종문화회관은 노후도가 심한 비상발전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서울시에 해당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으며, 2021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조치사항 통보 후 고장부품 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부품단종으로 인해 현재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수차례 교체를 권고받고도 오랜 기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 시 안전이라는 지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더불어 안전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2) 서울시유스발레단 창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1억원)

- 동사업은 시장공약사업으로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에 맞는 문화 예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유스발레단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도출해 내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려는 것임.
- 현재 세종문화회관 내 서울시 예술단은 총 9개로 그 중 성인 예술단을 제외한 유스팀은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서울시청소년국악단 등 3개의 예술단이 있음.
-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과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은 각각 서울시합창단과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의 지휘 아래 비상시 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은 성인 예술단이 없어 2017년 이후 현재 까지도 단장이 없는 상태로 계속 운영 중임.
- 예술단 활동과 관련하여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예술단 발전방안 수립 TF’를 구성하여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8회에 걸친 회의 후 같은 해 8월에 활동을 종료하였음.
- TF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예술단에 관한 명확한 운영 목표와 방향성 수립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안할 뿐 유스 예술단 활동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발레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발레단을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기존 보유하고 있는 유스예술단의 뚜렷한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반증이 되므로 동사업이 단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나눔연계공연 사업(3억원)

- 나눔연계공연 중 ‘예술로 동행’ 사업은 2016년부터 자치구 문화역량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 예술단이 자치구로 직접 방문해서 공연을 펼치는 사회공헌사업임.
-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 서울시 예산담당관이 동사업과 서울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진흥사업’이 중복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예산전액이 삭감되었음.
- 그러나 ‘지역문화 진흥사업’은 서울문화재단과 자치구문화재단 간 문화 분권을 바탕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
 - 따라서 서울시 예술단이 시민에게 찾아가 공연을 하는 ‘예술로 동행’과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자치구 문화예술복지를 위해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다만, 최근 3년 간 ‘예술로 동행’ 사업의 실적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대면공연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최근 3년 간 '예술로, 동행' 사업 실적 >

	구분	운영횟수			관객(조회)수		
		대면	비대면	계	대면	비대면	계
2019	문화협력	16	0	16	9,330	0	9,330
	사회공헌	5	0	5	794	0	794
2020	문화협력	2	2	4	449	652	1,101
	사회공헌	5	3	8	316	8,301	8,617
2021	문화협력	9	2	11	1,035	1,374	2,409
	사회공헌	2	32	34	60	3,933	3,993
	계	39	39	78	11,984	14,260	26,244

4) 기타 공연·전시 준비사업(2억 7천만원)

- 무용단 신작 쇼케이스, 뮤지컬 신규사업 준비금, 기획공연 사전준비금, 전시사업 사전준비금 이상 4개 사업은 차기사업연도 공연 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매년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왔으나 2022년도 사업 계획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음.
- 코로나19 상황 이후 공연의 정상화를 위해 공연사업의 예산규모는 늘리면서 예술단의 주요사업을 제외한 것은 예산부족이라는 사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종합의견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된 공연·전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다소 미흡한 점들이 파악되었음.

- 특히 ‘예술로 동행’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 사업이 추경으로 다시 편성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이며, ‘서울시 유스발레단 창단’ 사업은 기존 유스예술단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먼저 정립한 후 장기적인 과제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이후 자체수입은 급감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출연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비상발전기가 설치된지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안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 답변 :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편성하고자 했으나 출연금이 삭감되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음.
- 질의 :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9개 예술단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예술단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 답변 : 세종문화회관은 제작 극장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존 예술단의 체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전제로 유스발레단 창설이 적절한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음.

V.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151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나. 2022회계연도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무명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3) 사무내용

-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나. 추경개요

1) 추경예산 : 1,450,000천원

※ 총 출연금액 39,950,657천원 (기 출연금 38,500,657천원)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출연금 편성 내용

- 서울시 유스발레단 창단 타당성 : 100,000천원
- 예술로 동행 : 300,000천원
- 무용단 신작쇼케이스 : 80,000천원
- 뮤지컬 신규작품준비금 : 50,000천원
- 기획공연 사전준비금 : 120,000천원
- 전시사업 사전준비금 : 20,000천원
- 비상발전기 교체 : 780,000천원

2) 추경필요성

- 서울시 유스발레단 창단 타당성

-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에 맞는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유스발레단 창단에 대해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과 이해관계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 선행 필수

- 예술로 동행

- 세종문화회관의 연례 계속사업으로,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예술단 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문화예술향유 취약계층 시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상반기 내 협력 자치구 선정, 공연준비 등 추진 필요

- 무용단 신작 쇼케이스

- 공연 사업 특성상 사업이 확정되어야 연출, 작품라이선스 취득 등이 가능
- 사업기간인 11월~12월인 점을 감안, 사전에 연출, 대본 등의 계약이 선행되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므로 상반기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

- 뮤지컬 신규작품준비금

- 시장 조사기간과 라이선스 취득 시기를 고려하면 하반기 추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촉박한 사업기간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

- 기획공연 사전준비금

- 해외 라이선스 공연 특성상 라이선스 비용이 지불되어야 프로덕션 진행이 가능하여 하반기 추경으로 진행 시 사업 기간이 촉박하여 '23년 원활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

- 전시사업 사전준비금
 - 작품의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사업일정, 사업 계획의 확정이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우수한 작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에 추경하여 사전 사업 구상을 진행할 필요
- 비상발전기 교체
 - 법정 내용연수 기간 15년을 훌쩍 넘긴 45년째 운영 중으로 노후화가 심각하여 공연 중 정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교체가 시급

다.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 2) 규 모 : 대지 55,758 m^2 , 건물 63,396 m^2 (지하 3층, 지상 6층)
 - 공연장(세종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S씨어터), 전시관(세종미술관, 세종충무공이야기), 교육시설(세종예술아카데미)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이지나 (☎ 2133-2519)